

## 〈김영철전〉의 서사적 특징과 서술 시각

엄태식\*

— <차례> —

1. 서론
2. 박재연본 <김영철전>의 양식적 특징
3. <김영철전>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적 형상화의 양상
4. 이본의 서술 시각과 주제 의식
5. 결론

### 〈국문초록〉

원작 <김영철전>에 가장 가까운 이본인 박재연본은 ‘전(傳)’이 아닌 ‘소설(小說)’이며, 주인공의 형상, 전란의 작품 내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전기소설의 영향을 감지된다. 이에 박재연본의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 내용과 당대 역사적 사실의 관련 양상이라기보다는 그 소설적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은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에 휩쓸려 건주와 등주에서 혼인하여 아들을 낳고, 결국 조선의 평안도로 돌아오지만, 박재연본에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김영철의 귀국은 그의 절실한 회토지심(懷土之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국에서 편히 살고 싶은 바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운명’이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김영철전>의 공간적 배경은 건주·등주·평안도이다. 김영철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지만, 평안도에서의 그의 삶은 다른 두 곳에서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된다. 이는 <김영철전>이 17세기 중편 한문소설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영철전>에 형상화된 김영철의 이야기는 결국 노년의 김영철이 김

\* 숭실대학교 강사

응원에게 들려준 그것이며, 이는 그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김영철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며, 그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김응원에게 들려준 것이다. 작품에서 건주와 등주는 ‘풍요’와 ‘가족애’의 땅으로, 평안도는 ‘죽음’의 땅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바, 의식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종군의 고통으로 인해 가족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든 현재 평안도의 상황이, 김영철로 하여금 건주와 등주를 마치 낙원처럼 회상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김영철전>의 작자가 ‘저곳[건주·등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 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평안도]’의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연본·홍세태본·안석경본의 서술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 이본의 작자는 모두 김영철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박재연본의 작자는 죽음의 땅인 평안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김영철의 심리를 탁월한 서사 기법으로 형상화하였고, 홍세태는 김영철의 회토지심(懷土之心)과 군공(軍功)을 강조하였으며, 안석경은 홍세태본에 불만을 표하면서 김영철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이처럼 김영철의 사적을 이해하는 시각은 다양했지만, 그 기저에는 김영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국에서 처자를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온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金英哲傳, 金英哲, 平安道, 傳, 傳奇小說, 서술 시각

## 1. 서론

<김영철전(金英哲傳)>은 17세기에 벌어진 동아시아의 전란을, 김영철(金英哲)이라는 인물이 겪은 고난으로써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영철전>은 박희병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후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sup>1)</sup>

1)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민중의 삶-김영철전의 분석」(『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 -15세기

<김영철전> 연구의 전환점이 된 계기는 홍세태본의 원작이 된 <김영철유사(金英哲遺事)>와 동일한 원본 계열 이본인 박재연본 <김영철전>의 발굴이다.<sup>2)</sup> 이에 박재연본을 대상으로 한 작품론들이 <김영철전>의 이해를 심화시켰던바, 작품에 형상화된 가족의 문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홍세태본과의 대비,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의 조망 등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었다.<sup>3)</sup>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김영철전>의 실상에 보다 근접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철전>을 보다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재연본의 발굴로 인해 <김영철전>의 소설적 면모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철전>을 ‘전(傳)’ 혹은 ‘전계소설(傳系小說)’로 읽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작품의 ‘소설적 형상화’ 양상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

금오신화에서 18세기초 김영철전까지」(『민족문학사연구』 2, 민족문학사연구소, 1992); 권혁래, 「니손본 김철전의 사실성과 여성적 시각의 면모」(『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김진규, 「김영철전의 포로소설적 성격」(『새얼어문논집』 13, 새얼어문학회, 2000);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박이정, 2000).

2)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3)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작가의식」(『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권혁래,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의 소설적 수용양상-김영철전에 그려진 부부의 성격을 중심으로」(『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한편 박재연본 발굴 이후에도 홍세태본을 대본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홍세태의 작품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3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민희,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의 만남과 이산의 주체와 타자」(『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서인석, 「국문본 김영철전의 이본적 위상과 특징」(『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에서는 신자료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

박재연본의 소설적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작품에 형상화된 건주·등주·평안도의 모습과 작가 의식, 그리고 박재연본·홍세태본·안석경본의 서술 시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작품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4)</sup>

## 2. 박재연본 <김영철전>의 양식적 특징

박재연본은 홍세태본의 저본이 된 <김영철유사>와 동일한, 원작 계열의 이본이다. 그런데 박재연본 역시 <김영철전> 원작은 아니며, 원작 한문본의 국역본을 재한역(再漢譯)한 이본임이 밝혀졌다.<sup>5)</sup> 문제는 박재연본이 ‘한문본→국역본→재한역본’의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개가 일어났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문에서 국문으로, 또 국문에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표기문자가 거듭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박재연본은 그래도 원작 <김영철전>의 면모를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예컨대 박재연본에는 서인석본에서 처럼 국문소설의 서사문법에 의거하여 부연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 거의

4) 필자는 박재연 선생님으로부터 박재연본의 복사본을, 양승민 선생님으로부터 박재연본의 입력본을, 서인석 선생님으로부터 서인석본의 복사본과 입력본을 제공 받았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원문은 입력본을 복사본과 대조하여 필자가 다시 교정한 것이다. 필자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고에서 홍세태본 <김영철전>은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에 수록된 교합본을, 안석경본 <김영철전>은 『靄橋集』上(아세아문화사, 1986) 수록본을 대본으로 한다. 원문 인용 시에는 이본의 명칭과 책의 면수만 표시하며, 원문의 오자는 해당 글자 뒤에 ‘[오자→정자]’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5) 서인석, 앞의 논문, 117~125면.

없는데,<sup>6)</sup> 그 이유는 박재연본의 저본이 되었을 국문본에 그런 대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박재연본은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데,<sup>7)</sup> 이는 박재연본의 번역자<sup>8)</sup>가 국문본을 충실히 번역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연본의 저본이 되었을 국문본은 원작 <김영철전>을 축자직역(逐字直譯)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박재연본은 현재 남아 있는 이본 가운데 가장 善本이기는 하지만 오류가 없는 이본은 아니다. 박재연본은 ‘釜蓋浦’를 ‘富家浦’로, ‘蘇湖里’를 ‘疎草里’로, ‘河瑞國’을 ‘河瑞圖’로, ‘李晦’<sup>9)</sup>를 ‘李繪’로 표기하는 등, 인명과 지명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으니,<sup>10)</sup> 이는 박재연본이 영유(永柔) 지역에서 번역·유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sup>11)</sup>

<김영철전>은 그간 대개 ‘전’ 혹은 ‘전계소설’로 읽혀 왔고, 이에 따라 <김영철전>이 허구적 성격 역시 전이나 전계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이승수는 서사가 실제 역사에 종속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 <김영철전>의 내용이 당대와 후대에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점,

---

6) 위의 논문, 125~136면.

7) 양승민·박재연, 앞의 논문, 104~106면.

8) 여기서의 번역자는 박재연본의 필사자가 아니라, 박재연본의 모본인, 최초 재한역본의 번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9)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李晦는 1635년에 永柔縣令이 되었다.

10) 이러한 오류들은 모두 국문본을 再漢譯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11) 박재연본의 모본이 되었을 최초의 재한역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뜻이다. 필자는 박재연본의 필사 연대를 19세기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재연본 역시 선행 한문본을 전사한 것이므로, 박재연본의 모본이 되었을 재한역본의 산출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박재연본에는 한문필사본의 전승과정에서 발생하는 오기가 여러 곳 보인다. 예컨대 박재연본에는 ‘田檀’(56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홍세태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박재연본의 ‘田檀’은, 『승정원일기』에는 ‘申檀’으로 되어 있는데, 박재연본이 전사본임을 알려주는 한 예이다. 신단은 1639년에 영유현령이 된 인물이다.

<김영철전>이 정통 전으로서의 완결된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영철 이야기가 실전(實傳)에서 출발하여 소설로 변모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sup>12)</sup>

원작 <김영철전>이 소설로서 창작되었으리라는 견해는 양승민·박재연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sup>13)</sup>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한편 양승민은 박재연본이 종종 현실과의 치열한 대결을 그리는 데 관심이 높았던 전대 전기소설의 전통을 비교적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했는데,<sup>14)</sup> 그 밖에도 박재연본에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박재연본의 서두<sup>15)</sup>는 일반적인 전의 그것과 동일한 ‘인정기술’로 시작된다. 하지만 주인공 대에 이르러 몰락했다든지, 나이 스무 살에 이르도록 집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했다든지 하는 내용 등은 대개 한미한 집안 출신 선비가 주인공인 전기소설의 서두와 상통한다. 홍세태본에는 이 부분이 단지 “김영철은 평안도 영유현 중종리 사람이다. 집안 대대로 무과를 하였는데, 영철은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를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아 본현의 무학이 되었다.”<sup>16)</sup>라고 되어 있어 전기소설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애정전기소설의 남주인공들은 혼전에 여주인공과 성관계를 갖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여주인공과의 혼인이며, 혼인을 통해서만 남주인공의 결핍은 완전히 해소된다.<sup>17)</sup> 이는 <김영철전>에도 어느 정도 찾아

12) 이승수, 앞의 논문, 295~299면.

13) 양승민·박재연, 앞의 논문, 99면.

14) 양승민, 앞의 논문, 299면.

15) 皇明萬曆末 朝鮮永柔縣 有英哲者 凡民之大族也 其曾祖裕漢 登武科 早死未及筮仕 祖永愷亦以武成功 俄有毒疾 無仕宦意 終老於畎畝間 有一子曰汝寬 汝寬即英哲之父也 英哲自童丱 已有昂霄之氣 學韜幹[幹→鈐]習弧矢 馳馬鳴劍 頗有聲於州里間 年至二十 家貧未娶(박재연본, 1면)

16) 金英哲 平安道永柔縣中宗里人也 其家世武科 英哲自幼好馳馬善射 爲本縣武學 (홍세태본, 540면)

볼 수 있으니, 김영철이 건주와 등주, 그리고 조선에서 그토록 혼인에 대한 열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연본에는 김영철이 등주에 왔을 때 전유년의 작은 누이동생을 엿보고 내심 기뻐하는 장면이 있다.<sup>18)</sup>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문벌이나 빈부의 격차, 혹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혼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의 규범은 그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때문에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상대방을 ‘엿보는’ 장면이 설정되는데, 박재연본에서 김영철이 전유년의 누이동생을 엿보는 장면도 결국 애정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정전기소설에서 ‘전란’은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이별의 ‘계기’라는 기능적 요소로 작용한다. <김영철전>에 형상화된 전란은 마치 17세기에 벌어진 동아시아의 전란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애정전기소설의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김영철은 1618년에 종군하여 심하전투에 출전하는데, 이는 종조부 김영화의 죽음 및 건주 여인과의 만남의 계기가 된다. 1625년에 여진은 영원위(寧遠衛)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 이에 아라나는 김영철에게 전유년 등과 함께 강변에 가서 말을 기르도록 하는바, 이는 김영철이 건주를 떠나 등주에 이르러 전유년의 여동생과의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된다. 심양이 함락된 이후 조선의 사신은 해로(海路)를 통해 등주에 들렀다가 황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역

17)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176~185면.

18) 英哲見有年之兩妹 其長已適人 其季未及笄矣 英哲心自慰喜 密伺其舉止容顏 而其妻[妻→處]子及父母 莫知之也(박재연본, 22면)

시 결국 김영철이 등주를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 결국 이군수의 딸과 혼인하게 하는 계기로써 작용한다. 그 밖에도 1637년의 가도(假島) 정벌은 김영철과 아라나의 조카가 만나는 계기가 되며, 1636년 병자호란과 1637년 조선의 패배는 이연생이 김영철의 소식을 등주의 전씨에게 전하는 계기가 된다. 김영철은 1640년 청나라가 개주(蓋州)를 공격할 때 다시 출전한다. 이때 김영철은 이수남과 함께 통사가 되어 임경업의 밀서를 명나라 장수에게 전하는데, 그는 답서(答書)를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전유년을 만난다. 이 이야기는 홍양호의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에도 실려 있어 주목된 바 있지만,<sup>19)</sup> 김영철이 실제로 임경업의 막하에서 통역의 일을 맡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내용이 『해동명장전』에 수용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sup>20)</sup> 김영철은 1641년 청(淸)이 금주(錦州)를 정벌할 때도 출전하며, 이 역시 아라나 및 득북(得北)과의 상봉 계기가 된다.

이처럼 <김영철전>에 수용된 전란은 철저하게 ‘만남’과 ‘이별’의 ‘계기’로써 기능한다. <김영철전>의 서사는 17세기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거의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sup>21)</sup> 마치 실전(實傳)처럼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실 ‘완전한 허구’이며, 주인공 김영철조차도 작품에 나오는 바와 같은 일을 겪은 실존인물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김영철의 이야기를 실전으로 수용했던바, 그 이유는 원작 <김영철전>의 주도면밀한 구성 및 홍세태본의 영향 때문

19) 박희병, 앞의 논문, 24~25면.

20) 홍세태본에는 ‘李秀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바, 홍양호의 『해동명장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작 계열 <김영철전>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박재연본에는 ‘李秀男’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동명장전』의 표기와 다르다.

21) 이승수, 앞의 논문; 권혁래, 「김영철전과 해로사행의 수용양상」(『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전>이 전의 형식을 취하여 실사처럼 읽힌 것은 17세기 중편 한문소설의 지향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17세기에 창작된 한문소설들은 견문(見聞)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은데, 허균의 전을 비롯하여 <주생전>·<운영전>·<최척전>·<강로전>·<안상서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영철전> 역시 이 같은 17세기 소설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박재연본에서는 영유사인(永柔士人) 김응원(金應元)이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지나다가 김영철을 만나서 그로부터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김영철전> 역시 견문의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초중반의 한문소설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작품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작품에 끌어들이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이 시기 한문소설들의 작자들은 작품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서술하였던 것인데, <김영철전>의 작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소설사의 흐름을 따랐던 것이다.

이상으로 박재연본의 양식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박재연본은 기본적으로는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작품의 외피에 불과하며, 실상은 완전한 소설인 것이다. 따라서 박재연본의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17세기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 양상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소설적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22) <김영철전>은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그간 역사소설 혹은 사실계 소설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 <김영철전>을 전기소설의 전통에서 살펴본 이유는 이 작품을 전기소설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간 <김영철전>의 내용을 實事로 이해했던 경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영철전>의 허구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이 창작된 당대까지 존재했던 소설 양식과의 관련성을

### 3. <김영철전>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적 형상화의 양상

<김영철전>의 공간적 배경은 조선의 평안도, 여진(女眞)의 건주(建州), 명(明)의 등주(登州)이다. 김영철은 이 세 곳에서 모두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바, 이 지역들에서의 김영철의 행적과 그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김영철전>의 이해에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영철은 심하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 모습이 전사한 아라나의 아우와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유년 등 한인(漢人) 포로들과 함께 건주로 가서 아라나의 가정(家丁)이 된다. 김영철은 한인 포로들보다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1619년과 1620년에 탈출을 시도하나, 결국 붙잡혀 두 차례 월형(刑刑)을 당한다. 아라나는 김영철에게 한인 포로보다 후하게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까닭에 대해 묻는데, 이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해 8월에 영철은 밤을 틈타 달이나 몰래 산골짜기 사이로 숨어들어 창성 지경으로 향하였으나, 호인에게 붙잡혀 왼쪽 발꿈치를 베었다. 이듬해 4월에 또 도망쳤는데, 호병이 쫓아와 붙잡는 바람에 오른쪽 발꿈치를 베었다. 아라나가 영철을 꾸짖어 말했다. “지난해 너는 죽어 마땅했으나, 네 모습이 죽은 아우와 같음을 애석히 여겼기에 주장(主將)께 청하여 너의 죽을죄를 용서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후히 길러주고 정성껏 대접한 일이 만자(蠻子)와 다름이 있거늘, 네가 이제 다시 도망친 까닭은 무엇이나? 만약 개전(改

---

짚어 볼 필요가 있었더라, 이를 위해 전기소설과 <김영철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필자는 김영철이 실존인물일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지만, 김영철이 작품에 나오는 바와 같은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영철전>에 형상화된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은, 전란 체험의 꺾진한 반영으로 보기 어려우며, <김영철전>의 작자조차도 당대 전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인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俊)의 정(情)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죽게 되어도 내 감히 구해줄 수 없다.” 영철이 사례하여 말했다.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그리워함은 인지 상정입니다. 하물며 저는 동국에 있을 때 장가도 들지 못해 부모를 봉양할 사람도 없는데, 타국을 떠돌아다니며 이 한 몸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비록 요행히 목숨은 온전하나,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번 죽어 마땅할 죄를 범하고 다시 살려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 벌써 두 번째에 이르렀 습니다. 그 사정을 돌아보건대 어찌 가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라나가 이 말을 듣고 그 뜻에 가슴이 아파서 아내에게 말했다. “남자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야 천하에 공통된 일이므로,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도망친 것이 사실 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아니요. 나이가 스물이 넘도록 아직 처자의 즐거움이 없으니, 그 심사가 어찌 그러하지 않겠소?” 이어 죽은 아우의 아내 를 가리켜 말했다. “저 과부가 된 제수(弟嫂)를 이 사람에게 시집보낸다면 내가 전장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 가사를 주간(主幹)하게 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요. 또 이 사람은 궁마지재(弓馬之才)가 있어 내가 혹시 병이라도 들면 이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으리니, 이 역시 한 방법이요.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그의 아내가 천천히 대답하였다. “그 말씀이 제 뜻과도 꼭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건대 대체로 죽은 시숙(媿叔)과 방불하여 저도 이런 뜻을 가진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그 죽은 아우의 아내는 곧 그 아내의 동생이었는데 자매의 자색(姿色)이 모두 대단히 아름다웠다.<sup>23)</sup>

23) 其年八月 英哲乘夜逃遁 潛入山谷間 向昌城地界 爲胡人所捉 斬其左趾 明年四月又亡走 胡兵追捕 斬其右趾 阿羅那叱英哲曰 去年汝當死也 我愛汝貌猶亡弟 請於主將 貸你之死 仍厚養款待 與蠻子有異 汝今再亡 何也 若不俊 則於法當死 吾不敢更救矣 英哲謝曰 思鄉貫慕父母 乃人之常情也 況我在東國 未及娶妻 無可奉養父母者 流落他國 一身無依 雖幸生全 何樂之有 有生有死 人所不免 是以犯萬死之罪 忘再生之恩 背主人而亡者 已至再矣 顧其情事 豈不可憐乎 阿羅那聞之 悲傷其意 謂其妻曰 男子好色 天下所同 此人之再亡者 實非背我之恩也 年過二十 尙無妻子之樂 其心事 豈不然乎 因指其亡弟之妻 而言曰 以彼寡嫂 妻子

김영철은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이 조선에서 장가를 들지 못해 부모를 모실 사람도 없고 타국에서 몸을 기댈 곳조차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탈출의 이유가 단지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만 있는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혼인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또한 그로 하여금 탈출을 감행케 한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김영철이 그 아내와 나는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철은 자기를 버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아내의 물음에 대해, 전일에 두 번 도망쳤던 것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은 사실이나 빨리 장가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기도 했다고 대답한다.<sup>24)</sup> 김영철의 말을 단순히 아내의 의심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로 보기만은 어렵다. 그에게 있어서 혼인과 안정된 삶은 부모에 대한 효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김영철이 비록 부부애와 효행 사이에서 갈등하긴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올 의지가 확고했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철의 ‘회토지심(懷土之心)’이 정말로 그렇게 절실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다음은 김영철이 전유년 등과 탈출을 모의하는 장면이다.

此人 則我雖往戰場 使此人主幹家事 則好矣 且此人有弓馬之才 我或有病 則使此人代行 亦一道也 未知何如 其妻徐對曰 其言正合吾意 吾觀此人 大與亡叔彷彿 吾有此意久矣 未及發身 蓋其亡弟之妻 卽其妻之弟 而兄弟姿色 皆絕美矣(박재연본, 9~10면)

24) 是年 英哲生子 名曰得北 癸亥又生子 名曰得建 其妻謂英哲曰 君卽朝鮮之人 妾是女眞之人 初以異國之男女 幸爲同室之夫婦 生此二子 慶溢一家 若非天緣 焉能至斯 然聞君之父母 在於東國云 得非有棄我歸國之心乎 英哲曰 前日之再度亡歸 雖出於戀父母 而亦欲及時娶妻之計也 今蒙主人之厚恩 不惟免死 且以汝妻我會合未久 連生兩子 此亦天也 吾豈敢違天而負恩哉 其妻曰 我國之人 以高麗之人爲拙狡 君言何可信也 或呵之 或戲之 英哲亦笑而不答(박재연본, 10~11면)

영철이 말하였다. “당신들 여덟 명은 하늘 신령의 보살핌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즉 부모님을 뵙고 처자식과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천만다행으로 등주에 도달한다 해도 멀리 고국을 바라보매 아득히 바닷물만 출렁거리리니 무엇 때문에 해 지는 동네에 몸을 부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머물러 처자식을 보살피며 살다가 늙는 게 낫습니다.” 유년이 말하였다. “그대 말이 맞네. 하지만 내 반드시 그대를 위해 계책을 세워 작은 정성을 표하겠네. 그대가 만약 우리들과 함께 중토(中土)로 돌아가 등주에 도착한즉, 내게 두 누이동생이 있으니 큰 누이동생은 나이가 벌써 열여덟이고 작은 누이동생은 이제 열여섯인데 모두 자색이 있고 바느질도 잘 한다네. 이제 그대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갔을 때 큰 누이동생이 아직 남을 따르지 않았다면 큰 누이동생으로 그대를 섬기도록 할 것이요, 만약 이미 비녀를 꽂았다면 둘째 누이동생을 그대에게 시집보낼 것이야. 만약 두 누이동생 모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면, 그대는 잠시 우리 집에 머무르며 조선의 왕래하는 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긴 돛을 달고 조선으로 잘 돌아간즉 부모님도 뵈 수 있고 성명도 온전할 것이니, 이를 오랑캐에게 포로가 되어 초목과 함께 섞어가는 것과 비교한다면 영옥과 고락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 두 가지 계책 가운데 하나를 쓸 수 있으니,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그대가 만일 믿지 못하겠다면, 저 밝은 달이 하늘에 있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전백총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두 분이 달을 향하여 술잔을 나누며 맹세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영철이 문득 아내가 이별할 때 했던 말을 생각하니, 실로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었으나, 다시 묵묵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유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 여덟 사람은 반드시 나를 죽여 입을 막을 것이니, 개죽을 당해 봐야 좋을 게 없다.’ 마침내 뜻을 결정하고 응낙하니 유년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술에 섞어 같이 마시며 함께 달을 향하여 맹세하였다. “이제 함께 약속한 뒤로 만약 식언을 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미워할 것이며 신령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sup>25)</sup>

25) 英哲曰 君輩八人 若賴天之靈 得歸故國 則父母可見 妻子可逢 我則雖得萬一之幸 達于登州 一望故國 滄波萬里 何能致身於桑榆之鄉乎 反不如淹留於此 守妻

김영철은 목숨을 걸고 등주로 가 보았자 고국에 돌아갈 길은 막막하다며 차라리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대답한다. 이에 전유년은 김영철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 누이동생을 아내로 삼도록 하겠으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등주에 오는 조선의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전유년의 두 가지 제안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철이 전유년의 누이와 혼인한다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되고,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전유년의 누이와 혼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유년은 김영철에게 “아! 심양이 함락된 후로 육로가 막혔으므로 동국의 조공은 필시 바닷길을 거쳐 등주에 정박했다가 황성에 도달할 것일세. 그대가 만약 우리의 계획을 따라 함께 도망쳐 등주에 다다른다면, 산천으로 가는 길은 비록 막혀 있을지라도 뱃길로는 통할 수 있으니,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일세.”<sup>26)</sup>라고 말했는데, 이때 김영철은 “선생의 계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날개가 없으즉 심양조차 날아 넘어갈 수 없는데, 등주에는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sup>27)</sup>라고 말하며 같이 가기를 꺼려했다. 그

子而終老矣 有年曰 君言 是矣 然吾當爲君畫策 以表一寸之誠矣 君若與吾輩 同歸中土 得到登州 則吾有兩妹 長妹年已十八 季妹年今十六 俱有姿色 且工針線 今與君同歸吾家 長妹若未及從人 使長妹事君 若已上笄 當使次妹歸於君 若兩妹俱已適人 君可姑留於吾家 待得朝鮮往來之船 直掛長帆 好歸朝鮮 則父母可見 性命可全 與其作俘於夷虜 同腐草木 榮辱苦樂 果何如哉 此兩策中 可保其一者 君意何如 君如不信 明月在天 諸人皆曰 田百摠苟有此心 兩人酌酒對月 以成矢言可也 英哲忽思其妻臨別之語 實有所不忍於心 而又默念曰 我若不從有年之言 則彼八人者 必殺我而滅口 徒死無益也 遂決意而諾之 遂決意而諾之 有年大喜 齧指出血 和酒同飲 相與對月而盟曰 今與成誓後 若食言 則天必厭之 神必殛之矣(박재연본, 15~16면)

26) 嗟乎 自瀋陽陷沒之後 陸路阻絕 東國朝貢 必由海道 泊于登州 達于皇城 君若從吾計 與之偕亡 至于登州 則山川雖隔 舟楫可通 歸見父母 易如反掌矣(박재연본, 14면)

27) 君之計 過矣 吾輩既無羽翼 則瀋陽不可飛越 登州何可到也(박재연본, 14면)

러던 그가 위의 예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마음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누이동생을 아내로 삼게 하겠다는 전유년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내가 만약 유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 여덟 사람은 반드시 나를 죽여 입을 막을 것이니, 개죽음 당해 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김영철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의 현실 인식인 동시에, 탈출을 감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한 자기기만이자 합리화되었던 것이다.

김영철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후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영원위에서 1625년 겨울을 보낸 김영철과 전유년 등은 주장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했고, 이에 그들은 경사로 호송된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김영철이 조선인인 데다가 부모도 없으므로 가고자 하는 곳을 묻는다. 박재연본에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주장이 불쌍히 여기어 이 뜻을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에서는 주장으로 하여금 여섯 사람을 경사로 압송(押送)케 하여, 적중(賊中)의 동정을 다 물어 보고 부모의 성명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이 들르는 고을에 명을 내려 각기 양식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또 본읍에 공문을 보내 그들의 호역(戶役)을 면제하고 그들의 신역(身役)을 견제(鑷除)하였다. 그런데 오직 영철만은 조선 사람으로서 이미 부모가 없고 고향도 없으므로 조정에서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을 물었다. 영철이 아뢰었다. “소인은 다섯 사람들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여 정이 골육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유년은 일찍이 건주에 있을 때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며 결의하여 형제가 되었으니, 유년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묘당(廟堂)의 여러 장관들이 이 말을 듣자 낯빛이 변하여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사(義士)로다! 이 사람은 동국이 아닌데도 처자를 버리고 다섯 사람들과 함께 몸을 빼내 도망쳐 올 수 있었으니, 웅장(熊掌)과 어육(魚肉)을 취사(取捨)

함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책을 읽어보면, 임금에게 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임금을 잊어버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예로부터 줄기 차게 이어져 왔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본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영철로 하여금 유년을 따라가도록 했다.<sup>28)</sup>

김영철은 생사를 같이한 전유년을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이에 조정의 장관들은 『맹자(孟子)』 <고자(告子)>상(上)에 나오는 물고기와 곰발바닥 이야기<sup>29)</sup>를 하며 김영철의 사생취의(捨生取義)를 칭찬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영철이 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명나라 조정에서 김영철에게 가고자 하는 곳을 물었다는 것은 곧 그에게 고국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영철은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철은 등주로 가서 전유년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는 조선 사신의 배가 왕래하는 곳에 살면서도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김영철은 전유년의 누이동생을 엮본 후 전유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신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와 위로는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들고 아래로는 처자식의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홀로 남의 나라를 떠돌아다니

28) 主將憐之 以此意奏聞于朝 朝廷使主將押送六人於京師 備問賊中動靜 且詢其父母姓名 使歸其鄉里 而令所經邑 各給其糧饌 且行會於本邑 復其戶鑿其役 而獨英哲朝鮮之人 既無父母 又無鄉里 朝廷問其欲往之處 英哲告曰 小的與五人等約同死生 情同骨肉 而其中田有年 曾在建州時 同居一室 結爲兄弟 願與有年同歸 廟堂諸宰爲之動色曰 此真義士也 此非東國而能棄妻子 與五人等 抽身亡歸 非知熊魚之取舍者 能若是乎 讀書 食君之人 忘君降虜者 從古滔滔 其觀此人 寧不愧乎 使從有年而去(박재연본, 20면)

29) 孟子曰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經書: 大學·論語·孟子·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 677면)



며, 고향 산천은 까마득하여 소식은 기델 데 없고 큰 바다는 아득하여 배는 통하기 어려우니, 죽고 살며 슬프고 즐거울 때 서로 물어볼 친척도 끊어지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병이 위증할 때 서로 의지할 처자도 없습니다. 아, 전 형!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sup>30)</sup>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보다는 처지를 두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만이 묻어나는 말이다. 김영철은 전유년에게 고향 산천은 까마득하여 소식은 기델 데 없고 큰 바다는 아득하여 배는 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주에서 탈출하기 전, 전유년은 김영철에게 분명히 ‘등주는 조선 사신의 배가 왕래하는 곳’이라고 말했으므로, 김영철의 저 말은 사실이 아니다. 김영철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가장 쉬운 곳에 있으면서도, 조선을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단정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김영철은 전유년의 누이 전씨와 혼인한다. 전씨는 시부모를 뵙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화공(畫工)을 청해 김영철 부모의 초상을 그려서 벽에 걸어 놓게 한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다.

(혼인한) 다음 날 아침, 전씨는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문득 수심에 잠겨 눈물을 머금고 금방이라도 흘릴 듯 눈물이 그렇그렁하여 말했다. “여자가 다른 사람을 따르매 시부모를 뵙는 일은 인륜의 대사이입니다. 이 예(禮)는 사람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건만, 소녀는 유독 이를 행할 수 없으니 어찌 슬픈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또한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 또한 네 운명이니, 부질없이 슬퍼할 것은 없느니라.” 전씨가 말하였다. “우리 고을에 한 화사(畫師)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 이름을 드날리매 사람의 형상을

30) 君輩皆歸故土 上而承父母之歡 下而有妻子之樂 而我獨流落於異國 家山杳杳 消息莫凭 大海茫茫 舟楫難通 死生哀樂 既絕親戚之相問 飢寒疾病 又無妻孥之相依 嗟哉 田兄 我何爲哉(박재연본, 22면)

묘사함에 있어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불러와 시부모님의 형안(形顔)을 그리게 하여 매일 단청(丹青)을 우러러 절을 한다면, 저의 애모하는 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불쌍히 여겨 허락하였다. 이에 유년으로 하여금 화공을 청하여 당 위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영철이 빈주(賓主)의 예를 행하고 예폐(禮幣)를 후히 주어 사귀니 그 부모님의 연세와 생김새 및 동방 남녀들의 의복 제도를 화사에게 모두 말하였다. 화사가 여러 달을 머무르며 정성을 모으고 생각을 깊이 하여 몇 번이나 종이를 바꾼 뒤에야 그림이 완성되었으니, 완연히 무오년 이별할 때와 서로 비슷하였으나 조금은 노쇠한 기색이 있었다. 이에 영철과 신부는 구매한 집의 동쪽 벽에 영철의 부모님 화상을 걸어 놓았다. 부부가 목욕을 하고 향을 피운 뒤 예를 갖추어 공경히 절하니,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경탄하며 그 어짐에 감복(感服)하고 그 효를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영철은 그의 아내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예를 갖추어 절하고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공경히 아뢰었는데, 슬픔이 상례(常禮)보다 지나쳤으며 오래도록 깊고 절실하였다. 영철의 아내가 영철에게 말하였다. “비록 부모님을 받들어 모실 수는 없으나 부모님의 모습이 완연히 당상(堂上)에 있으니, 당신은 다시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고 귀한 몸을 잘 보전하십시오.” 영철이 말하였다. “응당 그대 말대로 하리다.”<sup>31)</sup>

31) 明朝 田氏謁於父母 忽愀然含涕 泫然凝涕曰 女子從人 謁於舅姑 卽人倫之大節 此禮 人所同行 而小女獨不得行之 烏得無感愴之心乎 父母亦長歎曰 是亦汝命也 不必爲無益之悲也 田氏曰 曾聞此州有一畫師 能繪素擅名 描寫人形 毫末不差云 今若邀致此人 俾畫舅姑形顏 每日瞻拜於丹青 則或可以少展孩兒愛慕之情矣 父母憐而許之 使有年請畫工來 邀之上堂 英哲施賓主之禮 以厚幣交之 以其父母年歲形貌及東方男女衣服制度 備言於畫師 畫師留數月 聚精繹思 再三易紙而後 畫乃成 宛然如戊午年離別時相似 而少有衰老之色矣 於是英哲與新婦 於所買家 以其父母畫象 掛於東壁上 夫婦沐浴焚香 具禮祇拜 瞻聆所及 無不聳歎服其賢稱其孝矣 英哲與其婦 晨昏必禮拜 出入必祇告 悲哀過常 久而深切 其妻謂英哲曰 雖未得奉侍父母 而父母儀形 宛在堂上 君不復過哀 善保貴體 英哲曰 當如君言矣 (박재연본, 29~30면)

이 대목은 전씨가 김영철의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해 벌인 일을 서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sup>32)</sup>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 속 김영철 부모의 모습이 “완전히 무오년 이별할 때와 서로 비슷하였으나 조금은 노쇠한 기색이 있었다.”라는 서술이다. 이제 김영철은 굳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곁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는 결코 김영철의 효심을 부정하지 않으며, 김영철이 처자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김영철에게서 왜 이런 면모가 발견되는가 하는 점이다.

김영철은 1627년에 아들 득달(得達)을 낳고 1630년에 아들 득길(得吉)을 낳는다. 그런데 김영철이 득길을 낳은 그 해에 조선의 진하사(進賀使)가 등주에 도착하였고, 이때 김영철은 영유현에 사는 이연생(李演生)을 만나 집안 소식을 묻는다. 이연생은 김영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어찌 차마 말하랴! 정묘년의 난에 자네의 아버님은 안주에서 돌아가셨네. 적들이 돌아가자 집안사람들이 시신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자네 조부께서 애통해 마지않으시면서 “영철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관이마저 죽었으니 늙어 병든 이 한 몸이 죽지 않고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전답을 모두 팔아 신령님께 제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기를 “영철이가 만약 죽지 않았다면 바라옵건대 가호를 내리시어 고향에 돌아오도록 하소서. 황천과 후토께서 얹어 있으시다면 저를 딱하고 가엾게 여기소서.”라고 하셨네. 얼마 후 가산을 탕진하여 생활을 꾸려 나갈 길이 없게 되자 조카 이룡의 집으로 가서 의지하셨지. 자네의 모친께서도 소초리(蘇草里: ‘蘇湖里’의 잘못) 본가로 돌아가시어 형제들에게 몸을 의탁해 계시네. 자네 집안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랴!<sup>33)</sup>

32) 권혁래,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의 소설적 수용양상 -김영철전에 그려진 부부의 성격의 중심으로』(『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73면.

이 말을 들은 김영철은 고국으로 떠날 결심을 굳히고, 이듬해인 1631년 봄에 조선 사신이 황도에서 돌아왔을 때 탈출을 감행하여 마침내 조선 평안도로 돌아온다. 김영철은 부친상을 마친 후, 이연생의 주선에 힘입어 임신년(壬申年: 1632년)에 이군수(李君秀)의 딸과 혼인한다. 김영철의 장인 이군수는 집안이 넉넉했기에, 김영철은 처가의 도움을 받아 조부와 모친을 봉양할 수 있게 된다.

이상 김영철이 건주에서 등주로 갔다가 평안도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국에 돌아온 김영철은 모친에게 “불효막심하고 못난 제가 구차한 목숨을 지금껏 보전하고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것은 부모님의 인자한 모습을 뵈고 절하려 하였던 것입니다.”<sup>34)</sup>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주와 등주에서 보인 김영철의 행동은 분명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의 그것이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영철은 건주에서 아라나의 가정으로 있을 때 등주 사람 전유년을 만났는데, 이것이 김영철을 결국 조선으로 귀환케 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적인 설정임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작자는 조선을 떠난 김영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김영철의 귀국 의지가 매우 확고했다고 보았으며, 이런 시각은 <김영철전>을 읽는 전통적인 독법과도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김영철에게 있어서 조선의 평안도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곳’

33) 嗟乎 尙忍言哉 丁卯之亂 君之父親 死於安州 及賊還 家人求其屍而不得 君之祖父 傷痛不已曰 英哲不還 汝竟又歿 老病一身 不死何爲 盡賣田土 享神供佛 日夜祈祝曰 英哲若不死 願降冥佑 俾還故土 皇天后土 若有所知 倘或哀我而憫我矣 未幾 家業盡蕩 無路資活 往依於侄子二龍之家 君之母親 亦還歸于踈草里本家 托身於兄弟 君之家事 尙忍言哉(박재연본, 33~34면)

34) 不孝無狀 尙保頑喘 萬死歸來 幸拜慈顏(박재연본, 43면)

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지는 않아도 되는 곳’ 혹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다시 말해 부모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평안도는 결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으며, 조선의 평안도에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애써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진하시를 따라 온 이 연생이 김영철에게 전한 저 말은 김영철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에 김영철은 건주에서와 똑같이 생이별을 감수하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김영철의 귀국은 그의 절실한 ‘회토지심(懷土之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국에서 편히 살고 싶은 바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운명’이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영철이 건주·등주·평안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철이 전후로 종군하니 남에게 진 빛이 매우 많아, 좌우로 침해하고 독촉하므로 버티어 보존할 방법이 없었다. 그 나머지를 모두 팔아 빛을 다 갚으니 집안 살림을 탕진하여 죽으로 끼니를 이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영철은 처자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등주에 있을 때에는 생계가 매우 풍족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불리 음식을 먹으며 날을 보내, 인간 세상에 기한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지난날 건주에 있을 적에는 살 집도 있고 논밭도 있어, 오직 말을 달리고 칼을 울리는 것을 일삼아도 술과 고기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이제 노경에 접어들어 재산을 잃고 집안을 결판내 입에 풀칠하기조차 매우 어려우니, 어찌 운명이 아니라? 내 하늘을 원망하라, 내 남을 탓하라?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懷土之心]이 없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씨는 연이어 세 아들을 낳았으니, 득상·득발·기발이다. 기해년, 조정에서는 자모산성이 서로의 요새라 여겼으나, 그 땅이 척박하여 거주하는 백성이 적었으므로 백성 가운데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역을 면제하였다. 영철은 젊

있을 때부터 종군의 고통을 익히 겪었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의 역을 덜기 위해 마침내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가 자모산성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sup>35)</sup>

김영철은 건주와 등주를 삶의 기본 조건인 의식(衣食)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평안도는 끼니조차 잊지 못하게 만든 곳이다. 의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풍요의 땅인 건주와 등주를 떨쳐 버리고 돌아온 김영철이 갈 수 있는 곳은 척박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자모산성’뿐이었다. 이처럼 <김영철전>에 형상화된 평안도는 결국 자모산성으로 상징되는 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영철전>은 17세기 중편 한문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견문의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작자가 작품의 말미에서 김영철과 김응원을 만나게 한 이유는 김영철의 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sup>36)</sup> 김응원은 김영철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 英哲前後從軍 負債甚多 左侵右督 無計支保 盡賣所餘 □民而畢償之 家契蕩盡 餽粥不繼 每對妻子而言曰 昔在登州 生理甚足 醉飽度日 不知人間有飢寒 往在建州 有家有室 且有田土 惟以馳馬鳴劍爲事 而酒肉惟意所欲矣 到今老境 破產亡家 糊口甚艱 豈非命乎 我其怨天乎 我其尤人乎 我無懷土之心 則豈至此境乎 李氏連生三子 及[及→曰]得祥得發祺發 己亥年 朝廷以慈母山城 爲西路關防之地 而以其土瘠 民居甚少 募民願居者 蠲其身役 英哲自少時 飽經從軍之苦 爲其三子減役 遂挈家人 居慈母城中 以終焉(박재연본, 67~68면)

36)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96~108면에서는 “英哲未死之前 具由呈文於巡營 乞上其事蹟於朝廷 以爲轉達於天聽之地 則巡使稱以事在久遠 不可煩於上聞 却之 饋酒一盃 給米一斗 而送之”(박재연본, 70면)라는 대목에서 순영에 글을 바친 사람을 김응원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김영철전>의 작자를 김응원으로 추정하였다.

노인장계서는 참으로 효자이십니다. 세 나라의 아들이 모두 일곱 명이므로, 훗날 번연(蕃衍)한 경사가 더할 것이니 하늘이 보답하여 베푼 은혜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경의 빈곤함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sup>37)</sup>

인정상 누군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런 자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선생께서는 처자를 버리기를 눈엣가시를 쾌히 없애듯 하셨습니다. 끝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 건주를 저버리고 등주를 버리매 일축(一蹴)하여 집으로 돌아와 부친상(父親喪)을 추복(追服)하고 조부와 편모(偏母)를 봉양하며, 생전에 봉양하고 사후에 장사지낼 때 효성을 다할 수 있었으니, 천하의 달효(達孝)가 아니라면 이와 같을 수 있었습니까?<sup>38)</sup>

김응원은 영유 지방에서 효행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sup>39)</sup> 그리고 예문에 나오는 것처럼 김영철은 당대의 효자인 김응원조차도 행하기 어려운 효를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문면 그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는 없다. 차마 못할 짓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안도는 건주나 등주 같은 의식의 풍요함은 생각할

37) 老人誠孝子也 三國子并七人矣 日後蕃衍之慶 其有況乎 天之報施 當於此乎 老境貧窶 不須介懷耳(박재연본, 70면)

38) 人情 孰不眷係於美妻愛子 而君能棄之 如快去眼中之物 終不弛愛父母之心 背建棄登 一蹴歸家 追服父喪 以盡其哀 奉其祖父及偏母 克盡誠孝於養生生死之際 非天下之達孝 能若是乎(박재연본, 70면)

39) 『승정원일기』 1698년 9월 24일 기사에 나오는, 영유현령 吳命俊의 疏에는 “신이 도임한 후에 선행이 있는 선비들을 찾은즉 현인 정계충과 김응원이 어버이를 섬김에 효를 다하여 향당에서 한가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를 내서 약에 타 먹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장례와 제사 때 감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던바, 기타 다른 이보다 뛰어난 행실과 신령을 감동케 하는 정성을 감히 다 진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臣於到任之後 求訪善士 則縣人鄭繼忠金應元二人 事親盡孝 鄉黨共稱 或指血和藥 母病獲痊 或送終追遠 冥應寔著 其他出類之行 感神之誠 不敢盡陳]”라는 내용이 있다.

수조차 없는 곳이었고, 건주·등주에서와 같은 화목한 가정생활은커녕 가족의 존재 기반마저 흔드는 곳이었다. 풍요와 가족애의 땅인 건주와 등주를 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땅인 평안도로 돌아온 김영철에게 있어, 힘든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효(孝)’와 ‘회토지심(懷土之心)’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위가 아니었을까? 김응원이 김영철에게 한 저 말들은, 닮음이 아니라 김영철 스스로의 자기합리화이자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꺾뎀기뿐인 최대한의 ‘보상’인 셈이다.

사실 김영철이 건주와 등주에서 겪었던 일들은 심하 전투 포로들이 실제로 겪었을 일들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역에서의 김영철의 삶은 17세기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던 당대 민중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영철전>의 서사, 곧 김영철이 김응원에게 들려준 과거의 일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sup>40)</sup> 즉 김영철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만을 ‘선택’한 것이며, 그의 술회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기억에서 나온 것이다. 의식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종군의 고통으로 인해 가족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든 현재 평안도의 상황이, 김영철로 하여금 건주와 등주를 ‘풍요’와 ‘행복[가족애]’의 땅으로 회상케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철전>의 공간적 배경은 건주·등주·평안도인데, 이 가운데 서술의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김영철이 태어나고 죽은 평안도이다. 김영철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김영

40) 永柔士人金應元 與英哲自少時同鄉里 偶過慈母山城 爲訪英哲 英哲殺鷄酌酒 以待應元 出其三子而拜之 應元問其平生所經憂樂 英哲嘖蹙曰 欲說往事 徒增怨懷 而長者有問 敢不悉陳 仍說其終始甚悉而曰 年老神耗 多有遺失矣(박재연본, 68~69면)



철전>에서, 평안도에서의 김영철의 삶은 다른 두 곳에서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될 뿐이며, 그는 항상 건주와 등주의 처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작품 후반부의 서사는 김영철이 건주·등주의 가족들과 만나거나 소식을 전하는 데 중심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영철전>은 평안도가 아닌 건주·등주가 중심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작자가 ‘저곳[건주·등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곳[평안도]’의 실상이었던 것이다.

#### 4. 이본의 서술 시각과 주제 의식

앞서 박재연본을 중심으로 <김영철전>의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재연본은 홍세태본과는 무척 다른 주제 의식을 구현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든 예문에서 보았듯이 박재연본에서의 김영철은 평안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 대목들이 홍세태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영철은) 반년을 있다가 밤에 도망하였으나 붙들려 왼쪽 발꿈치를 베었다. 후에 또 도망했다가 오른쪽 발꿈치를 베었다. 오랑캐 법에는 항복했다가 도망친 자가 세 번 월형(刑刑)을 당하면 죽이게 되어 있었다. 아라나는 영철이 끝내 도망치리라 생각하여 그 아우의 아내를 영철에게 시집보냈다.<sup>41)</sup>

유년은 영철이 처자를 잊지 못할까 걱정돼 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두 누이 미귀와 일장이 있는데, 가서 반드시 작은애를 자네에게 시집보

41) 居半年 夜亡走 得 刑左跟 後又亡 刑右跟 虜法 降逃者 刑三而戮之 阿羅那意英 哲竟亡 以其弟妻妻之(홍세태본, 542면)

내겠네.” 이에 유년과 영철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술에 섞어 함께 마시고는 달에 절하여 맹세했다.<sup>42)</sup>

일[김영철과 전유년 등이 건주에서 탈출하여 영원위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명나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영철에게 의식과 많은 돈을 하사하여 집을 사고 아내를 얻게 했다. 영철은 유년과 함께 등주로 갔다.<sup>43)</sup>

여인[전씨]이 영철에게 말했다. “남들은 다 시부모님을 뵈는데, 저만 홀로 그럴 수 없군요.” 이에 화공을 청해 그 모습을 그려 절을 했다.<sup>44)</sup>

이 같은 축약이 어떠한 의미 변화를 초래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한편 홍세태본에는, 박재연본에 없는 ‘논찬(論贊)’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박재연본과의 대비 속에서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외사씨는 말한다. “영철은 종군하여 오랑캐 진영에 빠져 있다가 도망쳐 중국으로 들어가 처자를 두었으나, 다 팽개쳐버리고 돌아보지 않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그 뜻이 장렬한가! 그 일 또한 기이하다고 할 것이다. 가도(槎島)의 전역(戰役)에서는 사지(死地)를 드나들어 노고가 매우 심했던바, 그 공이 기록할 만한 것이었으나 일찍이 조그만 상도 없었다. 현령은 말 값을 요구하고 호조는 또 남초 값으로 은을 독촉하여 그로 하여금 늑도록 성을 지키는 군졸이 되어 곤궁함과 억울함 속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 어찌 천하의 충성스런 뜻을 가진 선비들을 권면하는 일이겠는가? 나는 그 사적이 인멸(湮滅)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였

42) 有年恐英哲有顧戀意 謂英哲曰 吾有二妹美歸日長者 行則必以小室汝 於是 有年與英哲嚙指出血 和酒共飲 拜月爲誓(홍세태본, 543면)

43) 事聞 詔賜英哲衣食及百金 令買宅娶妻 英哲與有年歸登州(홍세태본, 544면)

44) 女謂英哲曰 人皆謁舅姑 我獨未 乃請畫工 畫其像而拜之(홍세태본, 544면)

다. 그래서 이 전을 지어 후세 사람에게 보여 동국에 김영철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sup>45)</sup>

이 부분에 담겨 있는 홍세태의 서술 시각은 이승수의 논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sup>46)</sup> 요컨대 홍세태는 김영철의 기구한 삶을 자신의 불행한 삶과 동일시한 것이다. 홍세태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원작 계열 <김영철전>, 곧 <김영철유사>를 읽고 완전한 전의 형식으로 <김영철전>을 개작했는데, 그의 입전(立傳)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박재연본에 보이는 것과 같은 ‘불운성’의 소거였다고 할 수 있다.

홍세태본의 논찬은 개작자 홍세태의 서술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여기에는 작품의 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이 이미 내재해 있다. 홍세태는 당시 벌어졌던 여러 전투에 참가한 김영철의 군공(軍功)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훌륭한 인물에 대한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개탄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영철전>에서의 전란은 철저하게 만남과 이별의 계기로 작용할 뿐이며, 작품에서 김영철의 군공은 아예 서술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박재연본뿐만 아니라, 원작 계열 <김영철전>을 축약한 홍세태본에서도 마찬가지다. 홍세태는 원작 <김영철전>의 불운성을 소거하고 김영철의 불우를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전후(戰後)의 ‘포상’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였으나, 원작의 내용과 주제의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애

---

45) 外史氏曰 英哲從征陷虜 逃入中國 有妻子 皆棄去不顧 卒能返故國 何其志之烈也 其事亦可謂奇矣 及椴島之役 出入死地 勤勞至甚 其功可紀 曾無尺寸之賞 而縣令索馬價 戶曹又督南草銀 使之老爲守城卒 困窮抑鬱而死 此何以勸天下忠志之士也 余悲其事迹湮沒 不顯於世 故爲此傳 以示後人 使知東國有金英哲云(홍세태본, 549면)

46) 이승수, 앞의 논문, 310~313면.

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안석경(安錫敬)도 이 같은 모순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홍세태 본에 대해 불만을 품고 <김영철전>을 다시 썼는데,<sup>47)</sup> 안석경본의 서두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나는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을 읽을 때마다 슬퍼서 길게 한숨을 쉰 지가 오래되었다. 아! 대명(大明)이 사해(四海)를 하늘처럼 덮어 조선이 대명을 부모의 나라로 섬길 때, 어찌 한 명의 백성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한 적이 있었겠는가? 비록 바람이 부는 바다에 표류하여 먼 나라에 던져진 자라도 가깝게는 한 해를 지나지 않고 멀어도 삼 년을 넘지 않아 자급(資給)이 있고 호장(護將)이 있어 부모와 처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 천하가 한 임금을 섬겨 사해가 서로 통함이 어찌 생민(生民)의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철은 조선의 편氓(編氓)으로 마침 천조(天朝)의 변란이 일어난 때를 당하여 전쟁터 가운데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은 것만도 요행이니, 그 절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근심과 그보다 넓기 어려운 한이야 어찌 말할 가치나 있었는가? 홍씨가 지은 전은 유감스럽게도 너무 번다하므로, 내 이 때문에 삭제하여 그 대략만 옮긴다.<sup>48)</sup>

안아무개는 말한다. “인륜이 다스려지면 치세라 하고 인륜이 어지러워지면 난세라 한다. 아! 김영철은 사람이 미천하고 사적도 보잘것없지만, 나라

47) 안석경의 <김영철전>에 대한 논의는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기록정신과 김영철전」, 『동방한문학』 30, 동방한문학회, 2009) 참조.

48) 余讀洪世泰所撰金英哲傳 每慘然長太息者久之 嗚呼 方大明之天覆四海而朝鮮之父事大明也 何嘗有一民不得所哉 雖風海之漂而絕國之投者 近不過莽歲 遠不出三季 有資給有護將 得返乎父母妻子之地 嗚呼 天下一君而四海相通者 豈非生民之至樂乎 英哲以朝鮮之編氓 適值天朝喪亂之際 而出入於兵戈中 抑其不死幸也 其羈絕之憂 難潤之恨 何足道哉 洪氏之爲之傳也 恨太繁 余爲之芟除而移其略(안석경본, 230면)

가 군신의 의를 잃었기에 그 자신도 부자와 부부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아! 난세의 일이 슬프지 않은가? 하지만 만약 영철이 정말 고국을 한결같이 마음에 두고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온갖 계책을 세웠다면, 그가 갔던 두 나라에서 장가들어 자식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랬다면) 아마도 인륜을 상하는 한은 없었으리라.”<sup>49)</sup>

안석경은 김영철의 행적을 명나라가 변을 당해 기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일로 보고, 홍세태와는 달리 김영철을 보잘것없는 인물로 폄하하면서 그의 인물됨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sup>50)</sup> 요컨대 이역에서 처자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고향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냐는 말이다. 안석경은 원작 계열 <김영철전>은 보지 못했지만, 홍세태본만 읽고도 김영철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본문의 개작 양상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예컨대 홍세태본에서는 전유년이 김영철이 처자를 잊지 못할까 걱정되어 누이를 시집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데 반해, 안석경본에서는 전유년과 김영철이 도주를 모의하는 대목에 전유년의 누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김영철이 전유년과 등주에 도착한 이후의 서술로써 “애초에 유년은 영철과 도주를 모의할 때 누이를 그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과연 영철에게 시집보냈다.”<sup>51)</sup> 라고 기술된다. 안석경은 홍세태본의 짙막한 서술 속에서도 김영철이 도주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누이와 혼인케 하겠다는 전유년의 말 때문일

49) 安○○曰 人倫治曰治世 人倫亂曰亂世 嗚呼 金英哲者 人微事小 然國失君臣之義 而其身父子夫婦不相保 嗚呼 亂世之事 可不哀耶 然使英哲 誠一心舊邦 百計必還 則所之兩邦 不取妻生子 庶幾無傷倫之恨矣(안석경본, 237면)

50) 윤지훈, 앞의 논문, 181면에서 이 점이 지적되었다.

51) 初有年與英哲謀走 約以妹妻之 及是果以妻英哲(안석경본, 233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에, 등주에 도착한 이후의 일을 기록한 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식으로 슬쩍 넘겨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석경은 김영철의 행적에 대해 의심을 품고 홍세태본의 불온성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개작하였으나, 그 역시 홍세태본의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기에, 홍세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논란을 붙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

이상으로 박재연본·홍세태본·안석경본의 서술 시각을 살펴보았다. 세 이본의 작자는 모두 김영철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박재연본의 작자는 죽음의 땅인 평안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김영철의 심리를 탁월한 서사 기법으로 형상화하였고, 홍세태는 김영철의 회토지심(懷土之心)과 군공(軍功)을 강조하였으며, 안석경은 홍세태본에 불만을 표하면서 김영철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이처럼 김영철의 사적을 이해하는 시각은 다양했지만, 그 기저에는 김영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국에서 처자를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온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김영철전>의 서사적 특징과 서술 시각을 분석한 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작 <김영철전>에 가장 가까운 이본인 박재연본은 ‘전(傳)’이 아닌 ‘소설(小說)’이며, 주인공의 형상, 전란의 작품 내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전기소설의 영향을 감지된다. 이에 박재연본의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작

품 내용과 당대 역사적 사실의 관련 양상이라기보다는 그 소설적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은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에 휩쓸려 건주와 등주에서 혼인하여 아들을 낳고, 결국 조선의 평안도로 돌아오지만, 박재연본에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김영철의 귀국은 그의 절실한 회토지심(懷土之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국에서 편히 살고 싶은 바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운명’이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김영철전>의 공간적 배경은 건주·등주·평안도이다. 김영철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지만, 평안도에서의 그의 삶은 다른 두 곳에서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된다. 이는 <김영철전>이 17세기 증편한문소설과 마찬가지로 ‘견문의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영철전>에 형상화된 김영철의 이야기는 결국 노년의 김영철이 김응원에게 들려준 그것이며, 이는 그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김영철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며, 그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김응원에게 들려준 것이다. 작품에서 건주와 등주는 ‘풍요’와 ‘가족애’의 땅으로, 평안도는 ‘죽음’의 땅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바, 의식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종군의 고통으로 인해 가족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든 현재 평안도의 상황이, 김영철로 하여금 건주와 등주를 마치 낙원처럼 회상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김영철전>의 작자가 ‘저곳 [건주·등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곳 [평안도]’의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연본·홍세태본·안석경본의 서술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 이본의 작자는 모두 김영철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에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박재연본의 작자는 죽음의 땅인 평안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김영철의 심리를 탁월한 서사 기법으로 형상화하였고, 홍세태는 김영철의 회토지심(懷土之心)과 군공(軍功)을 강조하였으며, 안석경은 홍세태본에 불만을 표하면서 김영철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이처럼 김영철의 사적을 이해하는 시각은 다양했지만, 그 기저에는 김영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국에서 처자를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온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문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문본까지 다루어야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테지만, 지면 관계상 그럴 수 없었다. 이 점 본고의 한계이며, 추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 참고문헌

박재연 소장 한문필사본 <金英哲傳>.

서인석 소장 국문필사본 <김영철전>.

安錫儔, 『靑橋集』(아세아문화사, 1986).

『經書: 大學·論語·孟子·中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권혁래,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의 소설적 수용양상-김영철전에 그려진 부부애의 성격을 중심으로」(『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65~88면.

권혁래, 「김영철전과 해로사행의 수용양상」(『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91~116면.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93~125면.

권혁래, 「나손본 김철전의 사실성과 여성적 시각의 면모」(『고전문학연구』 15, 한국



- 고전문학회, 1999), 113~145면.
-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박이정, 2000), 58~82면.
- 김진규, 「김영철전의 포로소설적 성격」(『새얼어문논집』 13, 새얼어문학회, 2000), 251~286면.
-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 540~550면.
-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민중의 삶-김영철전의 분석」(『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13~51면.
- 서인석, 「국문본 김영철전의 이본적 위상과 특징」(『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115~139면.
-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85~108면.
-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작가의식」(『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277~301면.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176~185면.
-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기록정신과 김영철전」(『동방한문학』 30, 동방한문학회, 2009), 169~198면.
- 이민희,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의 만남과 이산의 주체와 타자」(『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7~38면.
-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홍세태의 작품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3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3~315면.
-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15세기 금오신화에서 18세기초 김영철전까지」(『민족문학사연구』 2, 민족문학사연구소, 1992), 104~125면.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27~49면.
-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9~219면.

##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 and views of *Gimyeongcheoljeon*

Eom, Tae-Sik

Among the different versions of *Gimyeongcheoljeon*, Bak Jaeyeon vers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similar one to original *Gimyeongcheoljeon*, and it's more like novel than Jeon. In relation to the main character figure and inner function of war novel, the influence of jeon-gi novel is detected in Bak Jaeyeon version. He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ovelistic forming ways which can be found in Bak Jaeyeon version than the aspects of historical relation.

In *Gimyeongcheoljeon*, Gim Yeongcheol had to leave Joseon because of war, and had family in a foreign country. But in the end, he went back to Pyeong-an-do. However, in Bak Jaeyeon version, Gim Yeongcheol was described as the man who didn't want to go back to his native country. He wanted to stay in foreign country, and had comfortable life. The reason he went back to Choson was because of fate, not because of his desire.

The spacial backgrounds of *Gimyeongcheoljeon* are Geon-ju, Deung-ju, and Pyeong-an-do. While Gim Yeongcheol was moving place to place, he met a woman in each place, and got married three times. In all three places, he had a son separately. However, comparing to other two places, the life in Pyeong-an-do was barely described. This characteristic is related to the 'recording of experiences and observation' style found in novelettish novel in 17th. In *Gimyeongcheoljeon*, Gim Yeongcheol conveyed his experiences to Gim Eung-won in his old age. Gim Yeongcheol didn't tell the whole experiences to Gim Eung-won, but he chose some parts more meaningful to him, and recomposed the story. For Gim Yeongcheol, the symbolic meaning of Pyeong-an-do was death. When he was in Pyeong-an-do, his whole family was nothing but suffering. On

the other hand, the symbolic meanings of Geon-ju and Deung-ju were 'richness' and 'family affection'. Comparing to Pyeong-an-do, Geon-ju and Deung-ju were a paradis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 of *Gimyeongcheoljeon* wanted to show the real aspects of Pyeong-an-do through the story of Geon-ju and Deung-ju.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narrative views among Bak Jaeyeon version, Hong Setae version, and An Seokgyeong version. Each author agreed that Gim Yeongcheol was a tragic character who was forced to do something usually unable to do. The author of Bak Jaeyeon version focused on describing how Gim Yeongcheol not want to go back to Pyeong-an-do, and embodied his psychology with excellent narrative technique. However, Hong Setae more focused on Gim Yeongcheol's desire to go back to Pyeong-an-do, and merits as a soldier. And An Seokgyeong disagreed with Hong Setae version, and had a doubt toward Gim Yeongcheol. Even though some differences in the narrative views are found, there is one common recognition laid on the variants of *Gimyeongcheoljeon*. Because Gim Yeongcheol had wives and sons in foreign land, accusation is inevitable.

**Key Words** *Gimyeongcheoljeon*, Gim Yeongcheol, Pyeong-an-do, Jeon, Jeon-gi novel, Narrative Views.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